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경상북도와 손잡고 지역 경제 견인

2020. 10. 16.

- **'힘내요 대한민국' 참여 경북 업체 매출, 전년비 82% 성장**

2020. 10. 16. 서울 — 쿠팡과 함께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을 비껴갔다. 2020년 상반기 전체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쿠팡과 거래하는 경북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전년대비 82% 성장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쿠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쿠팡과 경상북도는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열고 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 4월에는 '힘내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을, 5월에는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세일 페스타' 기획전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2차 기획전에서는 연말까지 경북 지역 149개 중소상공인의 2,4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쿠팡과 경상북도는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에 각 12억원씩 총 24억원을 투입했다. 경상북도의 예산은 즉시 할인 혜택 제공에, 쿠팡의 예산은 마케팅 및 광고에 사용된다.

이밖에 쿠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열기도 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이 행사는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로 쿠팡 입점 안내와 온라인 판매 마케팅 특강은 물론 쿠팡 로켓배송 입점 방법과 마케팅, 상품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를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쿠팡과 경상북도의 지원은 경북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청도의 과일 업체인 '엘푸드'는 로켓프레시 배송을 통해 쿠팡 입점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10배 넘게 올랐다. 포항시 수산진흥과 역시 코로나19로 30톤에서 1톤으로 감소한 강도다리 출하량이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무침회와 물회가 인기를 끌면서 출하량이 전년을 뛰어넘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국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9월 '2020힘내요 대한민국 리포트'를 발행해, 쿠팡과 지역상생의 결과를 조명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상반기 쿠팡과 협력한 판매자의 매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서울경기 지역보다 1.6배 높았다. 쿠팡과
거래하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 역시 평균 100%를 웃돌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도 영세 상인들이 쿠팡을
통해 디지털 진출에 성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